

창 12:10-20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답게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약속도 흔들림 없지만, 아브람은 아닙니다. 상황 따라 흔들리면서, 믿음 없이 말하고 처신합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걱정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흔들려도,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람의 실패를 교육 자료로 쓰십니다. 교육 용어로 trial & error 가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뜻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오해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혼란에서 아브람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도 믿는다지만 때로 안 믿는 사람이 걱정할 지경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려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실패를 교육 자료로 쓰십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뼈아픈 실패 얘기가, 우리에게서 소망을 주는 복음입니다. 아브람처럼 주님이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 12:10-20 함께 읽겠습니다.

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11.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래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14.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16.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17.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18.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기도)

지난 번에 아브람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 부름에 순종합니다. 히 1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기 삶을 갑자기 바꾼 하나님과, 그 말씀만 의지한 겁니다. 그 믿음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산뜻한 믿음의 길 떠난 아브람이, 곧바로 실망스런 언행과 처신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에 기복이 심한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가나안은 산지고, 애굽은 나일강 평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식량을 찾아 내려간 일은,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아브람뿐 아니라 야곱과 열두 아들도 기근을 피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0 절 '거주하려고.' 장기 체류할 의도를 암시합니다. 아브람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은 농경사회라 정착해야 할텐데, 그것도 12:7 '이 땅'을 약속받자마자, 애굽에 정착할 생각을 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약속된 땅을 내던지는 것같아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아브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걸 강조하려고 '기근이 심하였다.'

그럼 이런 질문할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람을 막 부르신 땅에, 어째 기근이 듭니까?' 아브람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아브람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아브람은 기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따르기로 결정할 때, 즉시 큰 어려움도 겪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예수 믿고 어려움 겪자, 주변 사람들이 '신을 바꿔 그런다'며 수군댔습니다.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나'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브람은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갑니다.

문제는 애굽 국경에서 사래와 나눈 대화에 나옵니다. 아브람이 뭘 두려워 하나 설명하면서 사래에게 자기 계획을 말하는데, 성경은 사래가 무슨 말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 계획에 사래가 동의한 걸 암시한 겁니다. 이상한 건 아브람이 64 세나 된 사래를, 눈에 띄게 매력적으로 여긴 사실입니다. 그게 단지 남편의 질투심만은 아닌게, 애굽인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럼 “대체 예순 넷 된 할매가 아리답다는게 말이 됩니까?” 질문할 분들이 계십니다.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 제 눈을 끈 건 고든 웬함의 설명입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 즉 날씬한 모습이 아니라, 타고난 기품있는 기혼여성의 자태를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본 것이다.” 그로부터 2 천년후 그리스 로마 시대의 미인상은 비너스입니다. 그런데 비너스는 요즘 같으면 미스 월드가 아니라, 살빼는 프로그램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사래는, 그 나이에든 불구하고 매우 아름답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애굽은 언어도 셈족 언어가 아니고, 아브람 일행을 보호할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 아브람이 아내의 매력을 걱정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비겁한 짓’이 아닙니다. 게다가 사래는 아브람의 이복동생이니까, ‘누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아주 틀린 말도 아닙니다. 남의 아내 차지하려고, 남편 대우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이의 오라버니는 간대한 신부값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브람이 아내를 누이라 부른 건, 사래에게 구혼하는 사람과 결혼을 허락한다는 언질이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내 명예를 희생할 준비가 되었던 말도 됩니다. 나중에 바로가 아브람을 질책할 때 아무 말도 못한 걸 보면, 아브람도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과연 아브람이 걱정한 대로 15 절, 사래의 소문이 애굽왕 바로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왕의 구애를 거절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궁에 사래가 들어갑니다. 15 절 ‘이끌어들인지라’는 ‘한 여인을 아내로 공식적으로 맞아들인다’는 뜻도 있고, 성관계를 뜻하기도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바로 후궁중 하나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바로에게 직접 소개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17 절 '큰 재앙이 내린' 걸 보면, 바로가 실제 간음을 저질렀다는 암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바로를 속이고 아내를 내준 댕가로, 부자가 됩니다. 아브람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 이미 사래가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남의 아내로 내준 댕가로, 목숨을 부지하고 부자가 된 겁니다. '아브람이 말씀을 따랐다'고 12:4 절 했는데, 이게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른 겁니다? 성경은 침묵하지만, 약속을 함께 받은 아내를 바로에게 보내고, 대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받은 아브람이 마냥 기뻐을까요? 아닐겁니다. 그 노비나 바로궁에서 사래를 따라나온 계집종 중에,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나아줄 하갈이 섞였을 겁니다. 잘못된 선택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아브람은 '상황에 밀려 자기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항변할 수 있습니다. 기근도 그렇고, 애굽같은 초강대국에 겁없이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항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상황이 좋다면, 나도 잘 믿었을 겁니다." 아브람의 논리가 비록 당연할지라도, 거기 결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아브람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 문제보다 크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맺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기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댕에는 그런 궁리를 한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자기에겐 닥칠지도 모를 재난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반면, 하나님께 복종하며 정면승부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잘못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어찌지?" "일이 꼬이면 어찌지?" "가족들과 더 시간 보내려다, 승진에서 밀리면 어찌지?" 아브람의 잔꾀는 약속을 보전하기는 커녕, 하나님의 약속 전체를 망가뜨릴 지경이 됩니다.

아브람은 '모든 민족의 복'은 커녕, 아브람의 잘못으로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이 임하게 만듭니다. 17 절 애굽인들이 당한 '재앙'이 구체적으로 뭘지 모릅니다. 신 17:8 에서 이 단어는 사람과 사람이 접촉해 생기는 병을 뜻합니다. 레위기와 열왕기에서는 '피부병'을 뜻합니다. 바로는 그 재앙의 원인인, 아브람의 아내 사래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곧장 아브람을 불러 추궁하는데, 18-19 절 바로가 세번이나 연거푸 아브람에게 "어찌하여" "어찌하여" 추궁합니다. 바로의 불만과 놀라움을 그대로 드러낸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아브람에게 내린 형벌은 "여기—아내—데려—가라" 통명스럽게 요약됩니다. 애굽인들 손에 죽을 게 두려워 그랬다고는 해도, 아브람이 정직하지 못한 결과 왕을 간음케 만든 건, 당시 관습법으로 대역죄에 해당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데, 바로는 아브람에게 이상하게 관대합니다. 아브람 뒤에 강력한 신적 존재가 있다는 걸 감지하고, 그래서 바로가 보복할 수 없었던 사실이 본문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책망에 아브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침묵함으로 바로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에게서 오늘은 무슨 교훈을 배울까' 그런 기대로 오늘 말씀을 읽은 분은, 기대가 큰만큼 실망과 놀라움이 크실 겁니다. 교활한 남편은 자기 살자고 부부의 정절도 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약속이 어떤 위기를 맞게 되는지도 고려하지 못하고, 약속의 어머니가 될 아내를 곤경에 밀어 넣습니다. 남편을 '내 주'라 부르는 당시 문화에서는, 전적으로 아브람의 책임입니다. 그 절박한 위기의 순간 곤경에 빠진 아내를 구한 진짜 신량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언약 파트너가 언약을 내던져 언약이 파기되기 직전,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람이 바로의 호의로 부자가 되고, 아내도 되돌려 받고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다 잘됐다 하고 만족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망쳐버린 하나님 계획을, 세속 행복이 과연

보상해 줄 수 있나?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이 세상이 제공해 주는 걸 얻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등 돌린 사람들은, 흔히 자기들의 선택을 후회하고 통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단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쉽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말씀 한 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조력자 인간들이 아무리 큰 과오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당신 계획이 이지러지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심지어 죄악조차도, 아브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브람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시는지를 보여준 이 실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훌륭한 동기에서 출발했다, 얼마 못가 우리 무능력과 두려움때문에 걸길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증거할 기회를 망쳐버립니다. 남들처럼 살면서 그들 중 하나가 되게하려는 압력에 굴복해, 우리의 거룩한 삶의 방식을 손상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것을 초월해, 흔들림없이 서 있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해 게으름 부리거나 어려운 상황은 회피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훈련을 겪게 하시고, 아브람을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브람은 이 훈련을 통해 자기 꽤로 신변의 안전을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곤궁한 처지에서 구하실 수 있음을 확실히 경험합니다.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 떠날 때도, 아버지 그늘에서 하란을 못 떠났습니다. 가나안을 떠나 애굽 내려갈 때도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은 12:1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람에게는 현실적인 바람막이가 필요했던 겁니다. 믿지만 현실적인 방편도 필요했던 겁니다. 두길 보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람은 조카 롯과도 헤어집니다.

고전 10:11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처럼, 여기 위기에 직면한 아브람의 실패도 확실히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롬 11:29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이 장애물 넘는 훈련받을 때, 말이 장애물 앞에 이르러 계속 주저해도, 조련사는 계속해서 말을 장애물 앞으로 데려와 마침내 훌쩍 뛰어 넘게 만듭니다. 결국 아브람은 하나님이 자기 도움으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일부로 기꺼이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